

# CBWF 이슈페이퍼

발행처 | 충북여성재단

발행일 | 2022. 05. 12

발행인 | 박혜경

홈페이지 | www.cbwf.re.kr

##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의 노동위기와 과제

김희찬 | 충북여성재단 초빙연구위원

### 목차

1. 팬데믹과 보육교사의 노동위기 그리고 필수노동
2. 코로나19 이후 충청북도 보육기관 동향
3.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 노동실태
4. 소결
5. 정책제언

## 1. 팬데믹과 보육교사의 노동위기 그리고 필수노동

- 보육교사는 영유아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. 따라서 보육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보육교사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여건 보장이 필요함. 하지만 보육교사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로조건은 보육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음

- 특히 보육교사는 여성 고용이 집중된 직업군으로서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곧 성별 위계를 내포하고 있는 '수직적 성별 직업분리'(sexual division of labor)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있음. 이러한 점에서 보육교사의 노동실태는 젠더 차원의 이슈라 할 수 있으며, 성 인지적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조명할 필요가 있음
- 최근 보육교사 노동실태와 관련하여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육교사의 노동권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데 있음. 또한 보육교사는 팬데믹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의 안정적인 일상을 위해 전염병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노동을 해야 하는 '필수노동자(essential worker)'라는 점에서도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함
- 이에 이 글은 코로나19 이후 충북 보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노동실태를 다각도로 조사하여 코로나19가 돌봄 노동자의 근로환경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

## 2. 코로나19 이후 충청북도 보육기관 동향

### 1) 코로나19 이후 공급측면(이용률, 보육교사 수, 폐원율)변화

- 코로나19 전후 충북 보육기관의 정원 대비 현원 추이를 살펴보면, 충북 전체 보육기관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즉 이용률은 78.6%였음. 2020년 74.6%로 감소했음
- 2019년 충북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 수는 전체 7,685명이었고 2020년 7,624명이었으며, 2021년은 8월 기준으로 7,228명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
-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충북 보육기관 폐원율을 살펴본 결과, 2019년 폐원율 7.25%로 나타났으며, 코로나19 이후 2020년의 폐원율은 8.75%로 상승하였음

[ 표 1 ]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충북 보육기관 동향

구분	이용률	보육교사 수	폐원율
코로나19 이전	78.6	7,685	7.25
코로나19 이후	74.6	7,624	8.75
증감율	-3.6	-0.7	20.7

주 1 : 코로나19 이전 2019년 기준, 코로나19 이후 2020년 기준

## 3.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 노동 실태

-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의 노동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음

- 조사 표본은 기관 유형별 · 지역별 유의 할당으로 이루어졌고 분석에 활용한 표본 수는 1,030부임. 설문 조사의 내용은 코로나19 이후 고용 및 근로환경 변화, 코로나19 감염병 안전,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정성 등임. 분석은 IBM SPSS 22.0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, 기술통계 및 빈도분석을 실시함

•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사회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

-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여성이 99.9%였고 연령은 30대가 40.0%로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음. 일반교사가 70.7%, 주임교사 16.4% 그리고 보조교사 12.9%였음. 종사상지위를 보면 상용직이 89.1%, 임시직 10.6%, 일용직 0.3%로 나타남.

### 1)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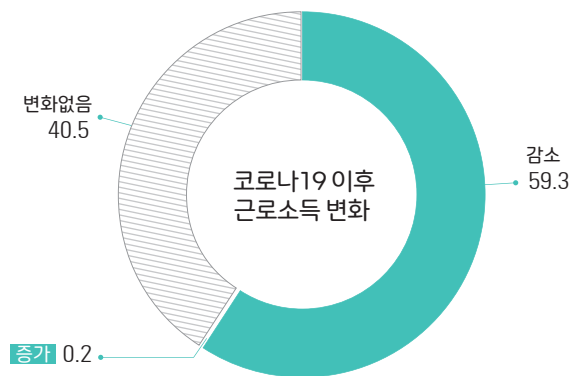
• 코로나19 이후 59.3%가 근로소득 변화를 경험했고 그 가운데 98%는 근로소득 감소를 보고함

- 일반교사, 주임교사, 보조교사 각각 58.5%, 55.6%, 68.4%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음. 그리고 임시 · 일용직은 68.4% 상용직도 58.2%가 근로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음. 다시 말해 코로나19는 보육교사의 직위, 종사상 지위를 넘어서 피해를 미치고 있음

- 반면,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근로소득 감소는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. 가정어린이집은 79.3% 민간어린이집은 74.8%가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했음. 이에 비해 국공립어린이집은 10.3%만 근로소득 감소를 경험함

-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·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간의 근로환경, 급여 등에 격차가 존재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 되어 왔음. 이러한 양상이 코로나19 이후에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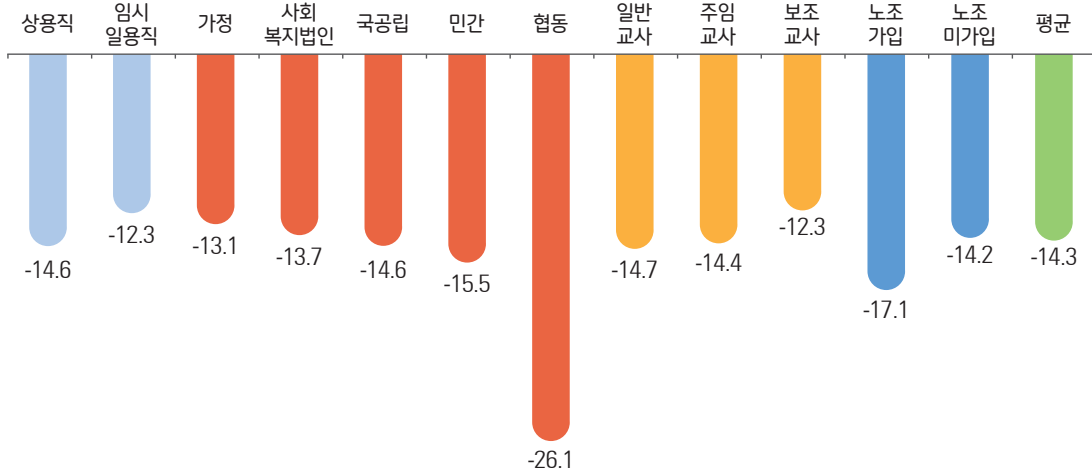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의 소득불안정이 높아졌다는 결과는 보육교사가 갈수록 불안정한 직업군이 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



[ 그림 1 ]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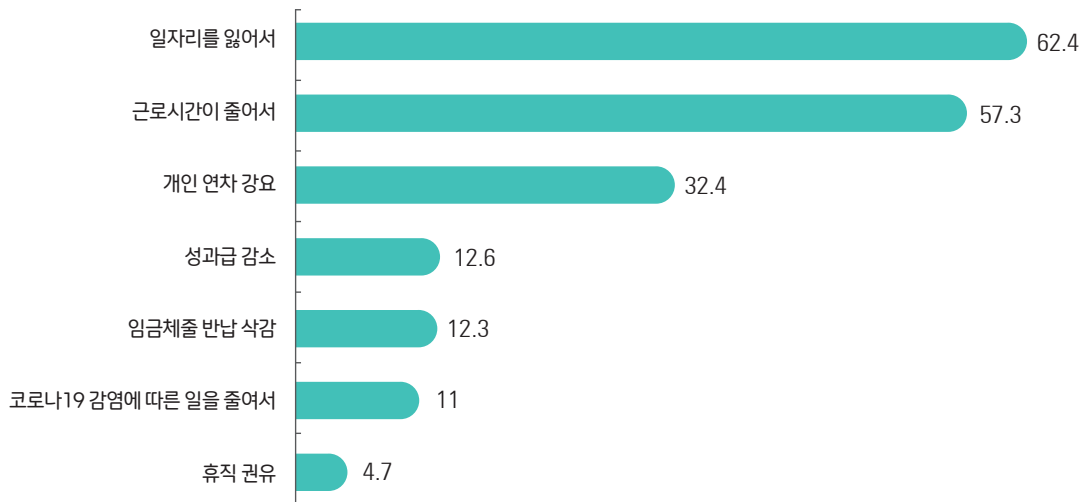
• 코로나19 이후 평균 근로소득 감소액은 약 14만 3천원으로 나타났음

-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했다는 응답자의 평균 감소금액은 약 14만3천원으로 나타났음. 협동이 약 26.1원으로 크게 감소했고 국공립도 14.6만원이 감소했음. 상용직은 14.3만원 임시 일용직은 12.3만원 감소했음



[ 그림 2 ]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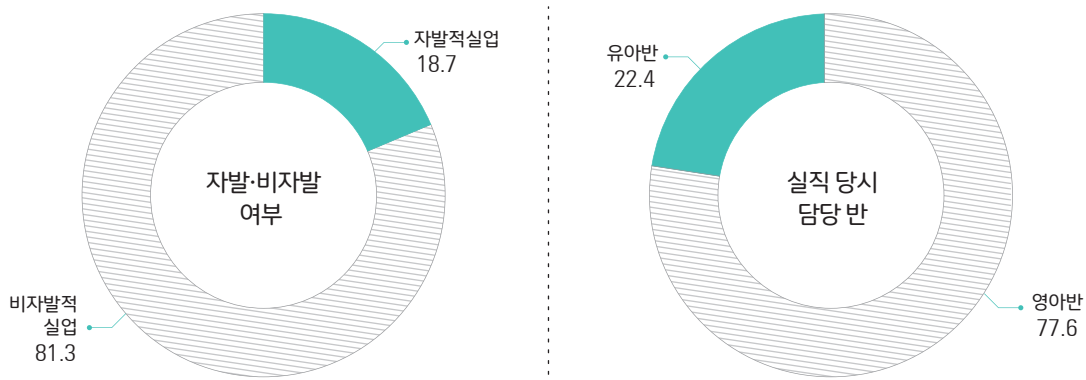
-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이 감소한 사유를 파악했음. 일자리가 줄어서(62.4%) 근로시간이 줄어서(57.3%). 연차 사용 강요(32.4%), 성과급 감소(12.6), 임금 체불 · 반납 · 삭감(12.3%),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일을 줄여서(11%), 휴직 권유(4.7%)로 나타남



[ 그림 3 ] 코로나19 이후 근로소득 감소 사유(중복응답)

## 2)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및 이직

- 조사대상자 10명 가운데 1명은 코로나19가 원인이 되어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음<sup>1)</sup>
  - 실직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81.3%는 비자발적 실업이라고 응답했음.
  - 실직 당시 담당 반을 파악해 본 결과 영아반이 77.6%로 유아반 22.4%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
  - 보육교사 실직 경험에서 특히 우려되는 점은 상용직의 실직 경험(10.5%)이 임시·일용직(9.8%)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는 점임. 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종사상 지위에 따른 고용안정성의 양상과 다른 결과임. 상용직과 임시·일용직의 실직 경험이 비슷했다는 결과는 곧 어린이집의 운영상의 어려움이 실직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음



[ 그림 4 ]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경험(자발·비자발 여부, 실직 당시 담당 반)

- 조사대상자 20.7%가 코로나19로 인한 사직 및 이직 의사가 있다고 응답함
  - 사직 의사는 9.3%였고, 이직 의사는 11.4%임
  - 일반교사의 경우 19.5% 향후 1년 이내에 사직 및 이직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고 주임교사 21.3% 그리고 보조교사는 26.3%로 나타남.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시·일용직이 22.3%로 상용직인 20.5%보다 더 높았으나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아님. 다시 말해 상용직에서도 이직 및 퇴사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
  - 사직 및 이직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 가운데 1순위는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직장 내 업무 부담이 26%로 나타났음. 다음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 가사 및 돌봄 부담이 27.7%로 높은 순위를 차지했음

1) 이 결과는 해석에 유의할 지점이 있음. 본 연구의 결과는 코로나19로 실직을 경험했다가 재취업한 대상자에게만 조사하여 얻어진 결과임. 즉, 코로나19로 실직 한 이후 현재까지 실업 상태이거나 다른 직업군으로 이직한 전( ) 보육교사는 배제된 값임.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를 추정할 경우 보육교사의 실직 경험을 과소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

[ 표2 ] 사직 및 이직 고민 사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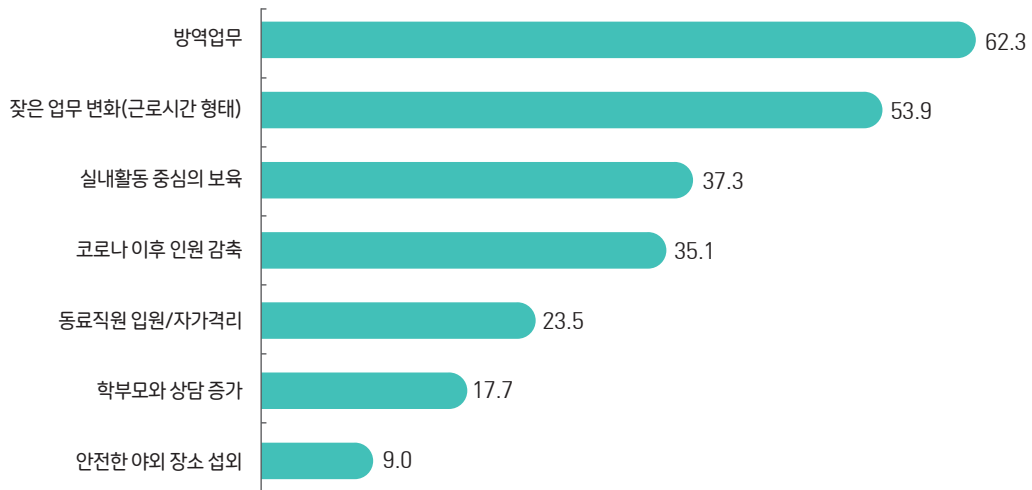
(단위 : 명, %)

항목	1순위 (N=213)	2순위 (N=213)	1순위+2순위 (N=426)
① 건강 문제 (높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감염 경험)	17(8.0)	16(7.5)	33(7.7)
② 코로나19로 인한 가정에서 가사 및 돌봄 부담	59(27.7)	31(14.6)	90(21.1)
③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직장 내 업무 부담	61(28.6)	53(24.9)	114(26.7)
④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	50(23.5)	47(22.1)	97(22.7)
⑤ 코로나19로 인한 권고사직 압박	3(1.4)	17(8.0)	20(4.6)
⑥ 코로나19로 인한 근무시간(근무패턴) 변화	10(4.7)	24(11.3)	34(7.9)
⑦ 코로나19로 인한 연장/추가 근무 등에 정당한 보상 거부	4(1.9)	10(4.7)	14(3.2)
⑧ 코로나19로 인한 임금(급여) 삭감 · 반납 · 체불	6(2.8)	5(2.3)	11(2.5)
⑨ 코로나19로 인한 연차휴가 사용 강요 혹은 불허	3(1.4)	10(4.7)	13(3.0)

3) 코로나19로 인한 노동 강도

• 조사대상자의 92.7%가 코로나 19 이후 노동강도가 높아졌다고 보고함

- 노동강도가 높아진 사유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추가적인 업무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음. 분석결과 방역업무 (62.3%), 잦은 업무 변화(53.9%), 실내 중심의 보육활동(37.3%), 인원 감축(35.1%), 동료직원 입원(23.5%) 처럼 코로나19 관련한 사유로 노동강도가 높아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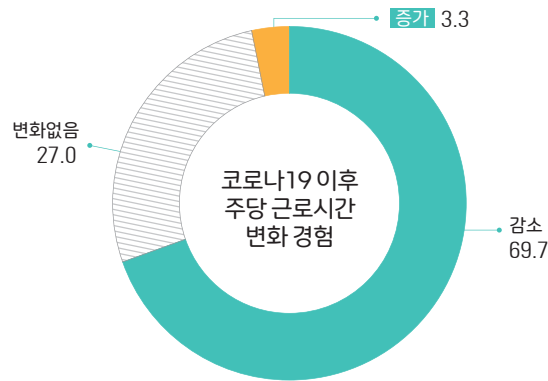
[ 그림 5 ] 코로나19 이후 노동강도 증가 사유(중복응답)

- 노동강도는 직업적 소진(burnout)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. 코로나19 이후 발생한 추가적인 업무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노동강도가 증가했다는 결과는 보육현장에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해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임

#### 4)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시간

•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73%가 근로시간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

- 노동시간이 감소했다는 비중이 전체의 69.7%로 가장 높았고 변화 없음이 27% 그리고 증가했다는 비중은 3.3%의 비중을 보였음
- 어린이집 유형별로 보면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감소폭이 가장 컸음. 가정 어린이집 종사자의 감소했다고 답변한 비중은 전체의 74.7%였고 민간 어린이집 종사자가 73.5%로 뒤를 이었음. 사회복지법인 종사자의 감소 비중은 64.9%를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의 감소는 60.3%의 비중을 보임



[그림 6] 코로나19 이후 주당 근로시간 변화 경험

- 코로나19로 근로시간의 감소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휴원 등의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겠으나 증가된 경우는 그 사유를 면밀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음
-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64.7%는 코로나19 관련 행정업무가 증가 때문이라고 답변했음.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증가를 답변한 전체 응답자 가운데 52.9%는 원생 이탈 방지 업무가 추가되어 근무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 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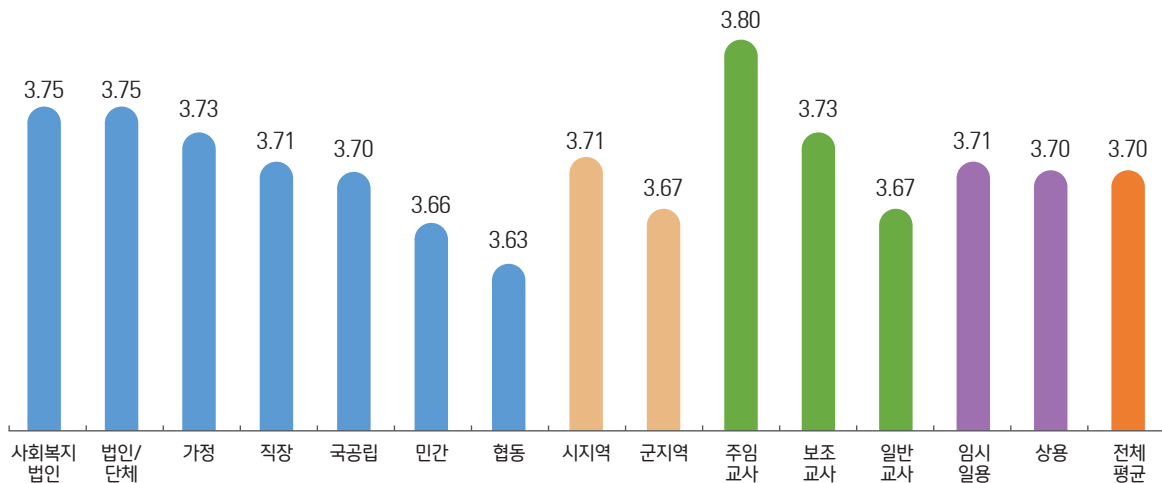


[그림 7]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증가 사유(중복응답)

## 5) 코로나19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

- 보육교사에게 코로나19로부터 현 사업장에 대한 안전정도는 평균 3.7점임<sup>2)</sup>

- 어린이집유형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, 법인/단체어린이집 종사자는 3.75점으로 가장 높았고 협동어린이집이 3.63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음
- 종사상 지위별 차이를 보면 상용직 근로자의 주관적인 안전 정도는 3.70점, 임시·일용직의 안전 정도는 3.71점으로 유사한 점수를 보였음



[ 그림 8 ] 현 사업장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주관적 안전 정도

- 충북 보육교사 83.6%는 어린이집 휴원 조치 기간에 출근하였음

- 어린이집 휴원 조치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원아와 종사자의 감염병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실시한 것임. 분석결과 전체 83.6%가 휴원 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드러났음
- 긴급보육을 시행했던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시기였을 뿐 아니라 마스크 수급의 어려움 등 감염병에 대한 사회적 두려움이 상당히 높았던 시기임. 이 시기에도 충북 내 상당수 보육교사는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대면 서비스를 제공했을 것으로 사료 됨
-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 보육교사의 역할과 희생이 상당했다고 볼 수 있음. 따라서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코로나19 관련 위험에 사회적인 관심과 처우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함

2)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, 점수가 높을수록 안전함을 의미함



## 4. 소결

-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보육교사의 근무조건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제기된 문제들과 함께 코로나19 라는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어려움이 결합되어 충북 내 보육교사의 근로환경이 더욱 열악해진 것으로 나타남
- 이러한 분석결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 사회의 오랜 불평등 가운데 하나인 여성 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빠르게 재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임.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더욱 열악해진 보육교사의 근로조건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여 도민들의 정주여건 악화와 인구유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
- 따라서 코로나19가 일상이 된 상황에서 충북 보육교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충청북도 차원의 관심과 대응도 중요함

## 5. 정책제언

-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방역물품 지원
  - 예산 규모가 작은 민간어린이집, 가정어린이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역물품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. 현재는 주로 손 소독제, 마스크와 같은 물품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교구소독기, 공기청정기, 공기살균기 등 다양한 물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
  - 특히 예산 규모가 작은 소규모 민간·가정어린이집을 중점으로 다양한 방역물품을 지원하여 방역에 따른 어린이집 예산 부담을 경감하고, 자체 방역수준도 제고할 필요가 있음
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배포
  -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필요가 있음. 매뉴얼을 제작하여 코로나19 관련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하고 보육 종사자의 대처능력 향상할 뿐 아니라 원아·보호자의 코로나19 안전 인식을 높여야 할 것임
  - 매뉴얼에는 질병에 대한 이해, 예방 수칙, 감염 발생 시 대응의 원칙과 순서, 격리 및 주의 내용, 위생 관리, 외부인 방문 대응, 보육현장의 환경 관리, 종사자·원아·보호자 주의사항 등을 포함해야 할 것임
- 어린이집 인력배치 기준의 현실화
  -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는 발열체크, 소독, 외부인 출입 관리와 같은 다양한 방역업무가 가중된 것으로 나타남. 따라서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를 완화시켜주는 지원이 중요함.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원인력의 현실성을 제고해야 함
  - 우선으로는 교사 1인당 담당 영유아 비율이 감소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력배치가 필요함. 행정 업무, 차량 지원 업무, 청소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요구됨

-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예산 지원 확대

-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가 경험하는 소득 및 고용불안정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궤를 같이하는 것임. 충북은 코로나19로 운영이 어려워진 정부미지원 어린이집(민간, 가정, 협동)에 대해서 2020년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바 있음
- 하지만, 본 연구의 분석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의 운영 어려움은 2020년에 국한되지 않음. 따라서 한시적인 지원으로 머물렀던 정책을 연장하여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

- 보육교사 노동권익 보장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강화

- 코로나19로 근로소득이 감소한 이유를 살펴보면 휴직 권유(4.7%), 임금 체불·반납·삭감(12.3%) 등의 사유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- 보육교사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노무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,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노무 관련 상담 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

- 보육서비스 공공성 확보

- 본 연구의 분석결과 코로나19 이후 보육교사의 노동실태가 전반적으로 악화 되었지만, 어린이집 유형별로 피해 정도의 차이가 나타남. 특히 소득 및 고용안정성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비해 민간·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더 열악했음. 이러한 분석결과는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실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민간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전달 방식이라는 점을 시사함
- 충북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을 통해 보육을 비롯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투명성,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

• 이현주·김희찬·김연화(2021), 「코로나19 이후 충북 보육교사의 노동실태와 정책과제」 연구를 요약·재구성함